

‘바둑’ 하면 ‘이세돌’ 떠오르도록 만들겠다



한판한판 기습 줄이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필생의 라이벌 이세돌과 구리의 삼성화재배 결승3번기. 명성답게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하며 전세계 바둑팬들의 이목을 휘어잡은 이번 결승3번기의 최후 승자는 결국 이세돌이었다.

포연이 잦아든 전장에서 1년 6개월 만의 세계대회 우승컵에 입 맞추며 활짝 미소 지은 이세돌. 아직 승부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세

돌을 만나 우승의 감회와 근황을 들어봤다.

-이번 구리와 의 삼성화재배 결승전은 기필코 이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었다. 그동안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도 승패를 떠나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고 싶다는 말을 해오던 것과 는 사뭇 달랐는데 이번 결승전의 승리가 것처럼 절실했던 이유는?

1년 6개월만의 세계대회 우승이다. 그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이번 결승전이 1인자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라고 봤다. 이번에 패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만은 무엇보다도 승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했다.

-결승전을 앞두고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 막상 1-1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자신감은 계속 있었다. 큰 승부를 앞두고의 관건은 ‘지면 어찌지’라는 불안과 걱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이다. 그런 감정이 아예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최종 3국에서는 끝내기에서 힘겹게 역전시킨 후 재역전 당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해 다시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승부에서는 내가 구리보다 그런 감정의 컨트롤을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싶다.

-결승 2국을 패한 후 인터뷰에서 우승이 아른거려 행마가 곤었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1국을 기적적으로 이긴 후 정신적으로 다소 헤이해졌던 것 같다. 우승이 아른거리기도 했지만 편하게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구리를 상대로 편한 승리가 있을 리 없는데 ‘이번 대국은 좀 쉽게 가야지’라는 생각에 치열함을 잃었다.

-구리와의 대국 시 초반 포석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나는 돌이 많아져야 수읽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스타일이라 초반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중국은 치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초반의 틀이 확실히 잡힌 상황에서 다음 구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는 초반을 짜기가 더 힘들다.

하지만 초반이 너무 평준화되면 특출한 천재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다만 구리는 초일류답게 자신만의 포석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미세하거나 아슬아슬한 승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옆에서 지켜보면 운도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운이 많이 따른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강자의 프리미엄이 겹쳐진 결과인 것 같다. 상대가 강자라는 의식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구리와의 라이벌이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구리와의 에피소드를 약간 들려 달라.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 32강전 구리와의 대국에서 희귀한 4패빅이 나왔다. 또 지난 9월 꾸이린배에서 만났을 때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꼭 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번 결승전에서 아프게 졌음에도 미소 짓고 인터뷰에 응하며 마지막에는 축하한다며 악수까지 권하는 구리를 보고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도 기분 좋게 얘기하며 술 한잔하고 싶은 친구이다.

-그동안 구리와의 10번기 얘기가 많이 오갔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이번 결승전으로 그 갈증을 약간은 풀었을 것 같다. 여전히 10번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세기의 라이벌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2012삼성화재배 결승1국 이세돌(左)과 구리의 대국 장면.

언제까지 우리 두 사람이 계속 정상에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시간이 지연된다면 다시는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 있을 테니.

-앞으로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세계대회에서 총 20회의 우승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 14번(TV아시아선수권 제외) 우승했으니 6번을 더 채워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바둑' 하면 누구나 '이세돌'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소 2~3년은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이세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자면 대회의 절반가량은 우승을 휩쓸어야 할 것이다.

외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강해져

-올 8월 말에 부인과 딸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일명 기러기아빠가 되었는데 힘들지 않나?

허전하고 외로운 건 사실이다. 지금은 그나마 내가 참여하는 바둑사이트 'go9dan.com'의 대표이자 친한 형이기도 한 John Lee가 같이 지내고 있어 좀 낫다. 내 대신 관리비까지 내줄 정도로 나는 살림에 형편없다.

하지만 아이는 몰라도 이역만리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아내가 많이 힘들고 외로울 거라 생각하니 내가 좀 더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진 것 같다.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사도우미는 따로 두는지.

식사는 주로 밖에서 사먹거나 라면 등으로 때운다. 가사도우미는 불편해서 두지 않는다.

-딸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 통화는 자주 하나?

아내와는 매일 하는데 딸은 통화하는 걸 즐기지 않아 많은 말을 하지는 못한다. 그저 빨리 와서 인형 사달라고 조른다.

-12월 30일 가족들을 보러간다고 들었다. 간단한 가족 상봉을 앞두고 기분은?

딸이 얼마나 크고 달라져있을지 궁금하다. 나를 어색해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가족들과는 언제쯤 다시 함께 살 계획인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2~3년 후에 같이 사는 게 희망사항이다.

새로운 도전 'go9dan.com'

-최근 'go9dan.com' 이라는 바둑사이트 (www.go9dan.com)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들

었다. 어떤 사이트인지 간단히 소개해 달라.

아마추어 입장에서 바둑을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 아마추어들의 숙원인 상수와의 대국도 훨씬 원활하게 매치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바둑보급을 겨냥해 만들었고 현재 'go9dan.com'은 한글과 영어에 더해 조만간 중국어와 일어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go9dan.com'의 대표인 재미교포 IT관련 사업가 John Lee는 미국바둑챔피언과 후지쓰배 미국대표로 16강에 오른바 있는 아마강자라고 들었다. 어떤 인연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는지.

John Lee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친한 형이다. 우연히 바둑사이트에 관해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 의기투합하게 됐고, 성공 여부를 떠나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트의 이름이 특이한데.

go가 일본식 용어라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편하게 go(가자) 9dan(9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편한 어감으로 쉽게 기억에 남을만한 이름을 선택했다.

-각각 한중의 정상 5인이 대결하는 총상금 1억원

의 WGL(World Go League)를 2013년 1월 20일부터 여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 측 선수들은 어떻게 섭외했나?

한국은 나를 비롯해 이창호, 박정환, 김지석, 박영훈이 리그 멤버이고 중국은 쿵제, 세허, 천야오예, 스웨, 판팅위다. 중국 선수들은 중국 쪽 아는 지인을 통해 섭외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들었다. WGL의 주요 대국 12판 가량은 바둑TV에서 중계할 예정이고 해설은 가능한 내가 직접 할 생각이다.

-두 가지 정도 더 특이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던데.

그렇다. 하나는 '이세돌 challenge'로 꼭 프로가 아니라도 전 세계 누구든지 내게 도전이 가능하다. 3번기로 진행되고 상금은 3만불이다. 내가 이기면 상대편이 3만불을, 내가 지면 go9dan이 3만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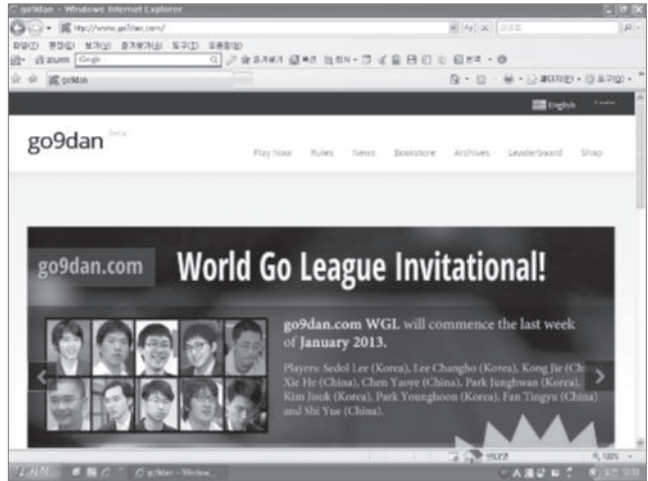
다른 하나는 올해 배출된 미국프로기사를 상대로 한 치수고치기다. 나와 호선으로 시작해 선, 선에 텀 석집, 2점 등으로 2판마다 치수가 고쳐지는데 10판을 진행해 내게 선으로 버티게 되면 상금도 주어진다. 해외바둑보급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획이고 미국프로기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바둑사이트 운영이 승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겠는가.

내 역할은 주로 마케팅 담당이다.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사이트 홍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 나는 본래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승부에도 더 자극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앞으로 난관이 많을 텐데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후회는 없을지?

당연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했을 때의 후회는 바둑의 승부에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일에는 언제나 실패가 전제되기 마련이고, 실패하더라도 의미 있는 도전과 경험



이세돌 九단이 참여하고 있는 'go9dan.com'의 메인화면

이자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면 된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유난히 중국 90후 세대의 돌풍이 거셌던 한해였다. 2013년 한중바둑계의 판도는 어떨지.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한국은 Top 랭커들이 잘 버텨야 하고 중국은 천야오예와 스웨, 탄샤오의 3인방을 주축으로 90후 세대들이 우후죽순으로 두각을 드러낼 것 같다.

-이세돌 九단도 언젠가 후배에게 1인자의 권좌를 넘길 텐데 그 시기와 유력한 승계자는?

시기 예측은 의미가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승계자는 박정환이고 그 외에는 13, 14살까지 한참 내려가야 해서 아직 예측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바둑팬들에게 한마디.

한 해 동안 변치 않은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슬럼프에서 벗어나 다시 성적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2013년에는 제가 꿈꾸는 독보적인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꿈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의 새로운 도전인 'go9dan.com'에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인터뷰/이세나 기자·사진/이주배 기자)